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66호 【루계 제23018호】 주체99(2010)년 3월 7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온 현대적인 비날론공장 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군중대회 성대히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 군대의 간부들과 함께 군중대회에 참석하시였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전당, 전국, 전민의 총공세가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이 준공되여 온 나라에 대경사를 펼쳐놓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긴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방대한 건설공사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온 나라를 크나큰 환희로 설레이게 하는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의 준공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공업건설사상과 로선의 빛나는 승리로 되며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온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현대적비날론공장의 준공을 경축하는 공도 함흥시는 이날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함흥광장과 그와 잇닿은 연도들에는 손에손에 꽃다발과 꽃묶음을 들고 나온 함흥시내 수십만 각계층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는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을 창조한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광장에는 49년전 5월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여 진행된 함흥시군중대회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새로 생산된 비날론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그 량옆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있었으며 국기게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붓기고있었다.

광장상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일심단결》, 《결사옹위》라는 글발들을 드리운 대형 기구들이 떠있었다.

또한 광장과 주변건물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수령님, 비날론이 막 쏟아집니다》, 《장군님 은덕에 변이 넘쳐나는 내 나라》, 《온 나라의 대경사!》 등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회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땅을 진감하고 온 광장은 환희의 꽃바다로 설레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격정의 환호를 터치는 군중들은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공업인 우리의 비날론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주신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현대적인 비날론공장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을 비롯한 함흥시민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당과 국가, 군대의 간부들인 김영남동지, 김영일동지, 김영춘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최영림동지, 홍석형동지, 김기남동지, 김정각동지, 김일철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내각부총리들, 각 도당책임비서들,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 함흥시내의 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의 일군들, 도와 함흥시의 책임일군들과 공로자들이 초대석에 나와있었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태종수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2면으로 계속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온 현대적인 비날론공장 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군중대회 성대히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 군대의 간부들과 함께 군중대회에 참석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대회에서는 이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지배인 리히헌동지와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리영애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벅찬 시기에 나라의 굴지의 종합적대화학공업기지인 2.8비날론련합기업소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주체섬유 비날론의 대량생산이 시작된것은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그처럼 바라던 강성대국의 광명한 미래를 지척에서 바라보게 하는 경이적인 대사변으로서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대의 경의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원쑤들의 머리우에 무서운 철추를 들씌우고 온 세상을 들었다놓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비날론기적, 우리 식 사회주의의 대승리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와 사상도 뜻도 운명도 함께 하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의 폭풍우를 과감히 뚫고나가는 우리를 당할자 이 세상에 없음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과시하였으며 강성대국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돌진해나가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날론영웅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일본새로 더 용감하게,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림으로써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안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떳떳하게, 긍지높이 들어서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대회가 끝나자 또다시 천지를 진동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광장은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천만군민의 심장의 웨침으로 하여 충성의 대하마냥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군중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을 환영하는

연 회 진 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을 위하여 마련하여주신 환영연회가 6일 마전호텔과 신흥산려관, 신흥관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모범적인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과 함께 국가, 군대 간부들, 우당위원장, 도당책임비서들,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김영일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가 연회에서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임에 따라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견인불발의 의지를 지니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자력으로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워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온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2월 기업소를 거듭 찾으시여 주체섬유 비날론솜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각종 화학제품들이 쾅쾅 생산되고있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오늘은 특별감사문을 보내주시고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는 군중대회를 진행하도록 하신데 이어 성대한 환영연회를 마련하여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의 로고가 어려있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일신시키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울이신 불면불휴의 로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기업소의 현대화를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공사장을 찾으시여 단계별목표와 그 수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숨죽었던 기업소가 우리 나라 굴지의 종합적대화학기지로 거연히 솟아올라 비날론솜을 비롯한 수많은 화학제품들이 쏟아져나오게 된 경이적인 성과는 인민의 행복을 최고의 리상으로 내세우시고 강철의 신념과 백두의 공격정신, 무한한 헌신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력사에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업소의 현대화공사에서 이룩된 성과를 고스란히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의 공적으로 평가해주시고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혁명전사들을 한품에 안아 시대를 개척하고 전진시키는 력사의 주인, 나라의 보배,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전위투사로 키워주시며 끝없는 삶의 보람과 영예를 안겨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두의 한결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나라의 비날론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고 우리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연설자들은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선군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혁명의 수뇌부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선군혁명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올해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에 담긴 사상과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비날론공장의 생산정상화와 능력확장공사에서 다시한번 대변혁을 일으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최후공격전을 힘있게 추동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당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한목숨바쳐 현실로 꽃피우는 견결한 혁명가로 억세게 살며 투쟁함으로써 주체적비날론공업의 창설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절세위인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비날론솜을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 특기할 해로 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함흥발 조선중앙통신】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는

함경남도예술단,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온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는 함경남도예술단,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이 6일 함흥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당과 국가, 군대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장내는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로 주체섬유 비날론이 쏟아지는 대경사를 펼쳐주시고 그 모든 성과를 우리 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시며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열화같은 흠모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설화와 합창 《온 나라의 대경사로세》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 《김일성대원수님 고맙습니다》, 남성독창 《정일봉의 우레소리》, 녀성6중창 《선군승리 웅헤야》, 무반주합창 《행복한 내 나라》, 가무 《요일풀이노래》, 무용 《돈돌라리》, 녀성5중창과 합창 《축배를 들자》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4 면으로 계속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자

군중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태종수동지의 보고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국, 전민이 올해 공동사설과 당창건 ６５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김철로동계급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온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 군중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군중대회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임에 따라 인민생활향상에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비날론대경사를 안아온 ２．８비날론련합기업소 전체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뜻깊은 올해에 현대화된 비날론공장이 일떠서 주체섬유인 비날론을 생산하게 된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기쁨과 신심을 안겨주는 온 나라 대경사입니다.

２．８비날론련합기업소가 ２１세기의 요구에 맞게 굴지의 종합적대화학기지로 새롭게 전변된것은 ２０１２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놓으려는 우리 당의 의도와 결심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며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의 래일로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상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2월 ２．８비날론련합기업소를 거듭 찾으시여 숨죽었던 공장이 되살아나고 비날론솜이 폭포처럼 쏟아지는것은 온 나라의 대경사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주체적비날론공업의 창시자이시고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당의 구상을 꽃피우는데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기업소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최상의 평가를 주시였으며 특별감사문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체적공업이라고 하시면서 화학섬유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바쳐오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나라의 화학섬유공업발전의 미래를 환히 내다보시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도 비날론연구를 중단없이 하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세계굴지의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워 이 땅우에 비날론공업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습니다.

이번에 비날론공장현대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 주체섬유가 쫭쫭 쏟아져나오게 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공업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２．８비날론련합기업소를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되고 대규모생산능력을 갖춘 대화학기지로 새롭게 일떠세우실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삼복의 무더위와 겨울철의 찬바람도 가리지 않으시고 최근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현대화의 단계별목표를 뚜렷이 제시하여주시고 그 수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습니다.

２．８비날론련합기업소의 현대화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강선땅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１２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새해전투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김철로동계급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의 선봉에 내세워주심으로써 강선의 봉화가 김철의 불길로 이어져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따라 온 나라에 대고조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서 우리의 경제는 무섭게 솟구치고있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게 되고 주체적인 철생산체계의 완성으로 세계야금계를 뒤흔들어놓았으며 인민경제의 생명선인 김철이 용을 쓰며 일어서고 오늘은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이 훌륭히 일떠서 비날론솜폭포가 쏟아지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온 나라를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게 하는 비날론의 대승리는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충만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구상과 의도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한 ２．８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기존생산공정들을 전면적으로 신설하고 비날론생산공정의 CNC화를 실현함으로써 １０년은 걸려야 할 방대한 대화학기지건설을 불과 2년동안에 해제끼는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하였습니다.

당의 결심이라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비날론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비날론섬유와 농약, 물감을 비롯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들의 생산공정이 세계적수준에서 꾸려지고 그 대량생산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였습니다.

２．８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혁명적의리를 지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우리 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강성대국건설의 선구자들입니다.

온 세상을 들었다놓은 경이적인 사변으로 하여 세계를 굽어보며 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선군조선의 무궁무진한 자립경제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고립압살책동도 단호히 쳐갈기며 강성대국승리의 령마루를 향하여 도도히 전진해나가는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용감무쌍한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게 되였습니다.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적비날론공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２１세기 비날론공업에서 일대 사변을 안아오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올해 공동사설과 당창건 ６５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며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１００돐이 되는 ２０１２년까지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우리 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강성대국의 승리가 지척에 있다는것을 확신시켜주는 오늘의 대경사는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로만 나아가면 강성대국의 대문은 반드시 열리며 우리 인민의 모든 리상이 빛나게 실현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의 해로 정해주시고 정초부터 현지지도강행군을 이어가시며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십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어떤 역풍이 불어온다 하여도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장군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며 천만이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여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천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당과 수령만을 믿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꿋꿋이 이겨온 우리 인민을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사는 인민으로 보란듯이 내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김철로동계급은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에 온 나라가 총동원, 총집중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공화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 사변을 안아올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의 선봉부대인 조선로동계급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 김철로동계급의 충정의 편지를 가슴에 새겨안고 불굴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오늘의 장엄한 대고조진군에 더욱 힘찬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를 인민생활에서 변이나도 큰 변이 일어나는 해, 인민들의 심장마다에서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터져오르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의 주공전선인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며 농장벌마다에 풍요한 오곡백과를 펼쳐놓음으로써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４대선행부문인 금속, 전력,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２．８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줌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힘있게 떠밀어야 하겠습니다.

２．８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이번에 비날론공장현대화와 생산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생산능력을 더욱 확장하고 화학제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당의 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며 하나를 만들어도 제 힘으로, 우리 식으로 남보다 월등하게 해내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창조정신을 지니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높이 강성대국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안고 １０월의 경축광장에 떳떳하게, 긍지높이 들어서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백전백승의 선군령도가 있고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비날론로동계급과 같은 영웅적로동계급의 대부대가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사회주의조국이 굳건하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게 될 휘황한 래일을 향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승리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갑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온 영웅적비날론로동계급을 열렬히 축하한다

함흥시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함흥 3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현대적인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6일 함흥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광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준공을 성대히 경축한 크나큰 영광과 행복, 비날론대량생산의 희한한 경사를 흥분속에 맞이한 긍지와 자랑을 안고 모여온 함흥시내 청년학생들로 차넘치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련관단위의 로력혁신자들, 함경남도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군들이 무도회를 관람하였다.

경축무도회는 노래 《장군님께 영광을》로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비날론공업의 현대화를 발기하시고 온갖 로고를 바치시여 력사적사변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칭송의 마음으로 무도회장은 뜨겁게 설레이였다.

아름다운 춤률동속에 광장바닥에 《영광》이라는 글발이 새겨졌다.

무도회참가자들은 《노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 《그이의 리상》, 《온 나라의 대경사로세》, 《축배를 들자》, 《강성부흥아리랑》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경축의 춤바다를 펼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평생념원,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이 실현되는 대고조시대의 환희런듯 《대경사》, 《비날론》이라는 글발이 춤바다우에 수놓아지고 장쾌하게 쏟아지는 비날론솜폭포마냥 춤물결은 세차게 이어졌다.

3월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 울려퍼지는 승리자들의 노래와 기쁨의 춤파도는 관람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비날론공장의 준공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성대히 경축하던 그날의 영광과 감격을 깊이 되새기게 하였다.

무도회참가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사회주의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가슴뜨겁게 전하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빨찌산식이로다》를 비롯한 노래들에 따라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돌파하라 최첨단을》,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의 노래속에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창조되고있는 선군조선의 자랑을 보여주듯 《CNC》, 《강성대국》이라는 대형글발이 광장바닥에 새겨지고 민족적정서가 넘치는 흥겨운 농악무도 펼쳐져 무도회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2010년을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펴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자!》라는 청년전위들의 우렁찬 구호와 화답소리, 《변이 나는 내 나라》,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공격전이다》 등의 노래에 맞추어 펼쳐지는 춤바다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안아온 비날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과 전투적기백을 과시하듯 마음과 마음을 합쳐 춤을 추고 또 추는 참가자들의 격정으로 하여 경축열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경축무도회는 위대한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올해 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선군청년전위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청년학생들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자랑많은 대화학공업기지

가성소다, 염화비닐생산공정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종전의 낡은 생산계통을 대담하게 들어내고 처음으로 일떠세운것이 가성소다, 염화비닐생산공정이다.

가성소다생산공정의 능력은 년산 수만t이다. 기초적인 무기화학제품으로서 가성소다는 화학섬유, 팔프, 종이, 비누, 전해액, 도금액의 생산과 가죽이김, 유색야금 등 그 리용분야가 넓다. 현대적으로 개건된 염화비닐생산공정도 자랑할만 하다. 여기에서 생산된 염화비닐수지원료들은 이미 적지 않은 단위들에서 갖가지 염화비닐제품생산에 리용되고있는데 그 질이 좋은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농약, 분산물감생산공정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혁명적대고조의 첫해인 지난해에 농약, 분산물감생산공정을 새롭게 일떠세웠다.

해당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기업소에 꾸려진 농약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량만으로도 우리 나라의 기본경지면적의 논밭들에 필요한 량을 충족시킬수 있다고 한다.

새로 꾸린 분산물감생산공정도 기업소의 자랑이다. 그 조성과 구조적특성으로 하여 지난 시기의 산성, 염기성물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산물감생산공정의 능력은 대단하다.

본사기자

2면에서 계속

출연자들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멀고 험한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였으며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무한대한 정력과 불면불휴의 령도로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만방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더욱 뜨겁게 간직하게 하는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비날론공업건설의 초행길을 걸으시며 주체적인 화학섬유공업을 창설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되고 대규모생산능력을 갖춘 화학기지로 일떠세우실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삼복의 무더위와 겨울철의 찬바람도 가리지 않으시며 온갖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길이 되새겨져 눈시울을 적시였다.

출연자들은 녀성4중창 《내 나라의 자랑높은 비날론일세》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방대한 현대화공사를 불과 2년동안에 해제끼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한 비날론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기풍을 잘 보여주었다.

공연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우리 당이 추켜든 첨단돌파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 천만군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며 김일성조선의 100년대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로 장식할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설화와 합창 《변이 나는 내 나라》, 《돌파하라 최첨단을》로 끝난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함흥발 조선중앙통신】

더욱 높아가는 소묘열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이 사는 곳에 미술이 꽃피고 미술이 창조되는 곳에 인민들의 아름다운 문화정서생활이 펼쳐진다.》

얼마전 2.16경축 제3차 전국소묘축전이 계속되고있는 평양국제문화회관을 찾아 출품된 여러 소묘작품들을 돌아보던 우리는 애호가부문전시대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참관자들의 시선을 모으는 작품들을 출품한 미술애호가들이 다 낯익은 구면이였기때문이다.

조선인민군협주단 배우 김익, 조선인민경비대 군인 홍별, 조선인민군 군인 원진혁동무들은 소묘축전이 진행될 때마다 훌륭한 작품들을 내놓아 미술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어찌 이들만이랴.

이번 축전에 전시된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소묘작품앞에 정성껏 키운 수십상의 김정일화를 드린 한수미, 한별미자매도 지난 축전들에 인상깊은 명화폭들을 내놓아 그림을 통해 이미 우리와 친숙해진 애호가들이였다. 그들은 이번 축전에 또다시 연필화 《새봄》, 《〈희천속도〉 창조자들을 찾아서》를 출품하였다.

유치원시절에 연필화 《백두산호랑이》를 그려 제1차 전국소묘축전에 내놓았고 어버이장군님앞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영광을 지녔던 신의주예술전문학교 소학반 4학년 김혁일학생도, 남포학생소년회관 소조원들도, 3차축전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소묘작품들을 내놓은 김규권학생도 우리에게는 결코 초면이 아니였다.

그들이 출품한 소묘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소묘열풍속에 누구나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선군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참된 삶을 누려가는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가슴후덥게 안아보았다.

우리의 《구면친구》들에게 도전이라도 하듯 수많은 미술애호가들이 이번 축전에 대고조로 들끓는 벅찬 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반영한 소묘작품들을 출품하였다.

수많은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 선교편직공장 로동자 서휘영, 평양교원대학 교원 한미향, 녕변군 대천협동농장 농장원 박룡철동무를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들 그리고 유치원어린이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소묘축전과 더불어 그들 역시 《구면친구》로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선군문화의 화원은 더욱 만발하리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백 성 근

생산자대중을 혁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예술선동준비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흑령탄광에서— 본사기자 리 원 국 찍음

‖ 수 필 ‖

안 해 의 마 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안해의 마음, 이렇게 제목을 써놓고보니 한 과학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내가 그를 두번째로 만난것은 천내리세멘트공장에 대한 취재길에서였다.

이름은 리명환, 30대에 박사가 된 그는 학계가 인정하는 수학연구소의 전도유망한 청년과학자이다. 연구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공동연구와 관련한 초청장이 왔다고 하였었다.

지금쯤은 유럽의 이름있는 연구소에서 세계 여러 나라 과학자들과 함께 공동연구사업을 하고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를 세멘트생산현장에서 뜻밖에 만나게 된 나의 놀라움은 컸다.

의문을 감추지 못하는 나에게 그는 세멘트소성로에 대한 자동조종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나와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안해가 떠밀더군요. 자기는 뭐 세계적인 과학자의 안해보다 내 조국의 참된 과학자의 안해가 되고싶다나요. 세계적으로 떨치는 명성의 반경보다 우리 조국을 위하여 바치는 애국의 반경이 나에겐 더 크다, 이렇게 수학적인 개념까지 척척 써가면서 말입니다.》

웃음속에 하는 말이였으나 무엇인가 쿵— 하고 나의 가슴을 울리는것만 같았다.

무릇 남편이 잘되기를 바라는것은 안해의 마음이다. 그럴진대 과학에 뜻을 둔 과학자의 안해라면 학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남편을 바라지 않는 녀성이 어디에 있으랴.

하다면 사랑하는 남편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칠수 있는 외국의 연구소로가 아니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조국의 생산현장으로 아쉬움없이 떠밀어보낸 안해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의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

고난의 그 시기 모진 마음속 고충도 가슴속에 묻어두고 흔연히 웃으며 황철을 활성화하기 위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로 남편을 떠나보낸 한 전기공학자의 안해며 불치의 병으로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애써 웃음지으며 남편을 수천리의 대동강물고기탐험길로 바래준 동물학자의 안해, 조국이 절실하게 기다리는 남편의 연구결과를 위해 생사를 각오해야 하는 실험에도 서슴없이 나선 생물공학자의 안해…

어찌 과학자의 안해들뿐이랴.

남편들과 함께 조국의 초소를 지켜가는 군관의 안해들, 마음씨고운 영예군인의 안해들, 희생된 남편의 뒤를 이어 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와 돌격대원이 된 녀성들…

고생도 락으로 여기는 우리 녀성들의 아름답고 헌신적인 그 마음은 진정 총을 쥔 군인에게는 총끈이 되여주고 탐구의 길을 걷는 과학자에게는 등불이 되여주며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영예군인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혁명의 꽃으로 피여나고있는것이다. 저 하나, 자기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조국의 부강번영이라는 크나큰 행복으로 이어지고있다.

하거늘 안해의 마음, 그것을 어찌 자기 남편 하나만을 위하는 세습적인 사랑에 비할수 있으랴.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뜨겁게 회고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고결한 한생이 삼삼하게 되새겨진다.

김정숙동지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리시여 공화국이 창건되던 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동안 내 뒤바라지를 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했다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여태 고생만 시켰는데 오늘은 내가 한잔 부을터이니 마시라고 만단사연과 뜨거운 정을 담아 말씀하실 때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올리였다.

왜 아무것도 해준것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당을 창건하고 군대를 창건하고 공화국을 창건한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한생에 쌓인 원을 다 풀어주시였는데 그것이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조선의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애국충정의 세계, 고결한 풍모!

우리 녀성들의 마음속에는 오늘도 김정숙어머님께서 함께 계신다.

김정숙어머님을 그대로 닮으려는 이 나라 녀성들의 그 마음들이 저 하나, 자기 한가정의 행복보다 먼저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바치는 가장 아름답고 열렬한 사랑으로, 강성대국의 억센 기둥을 떠받드는 하나하나의 고임돌로 되고있는것 아니랴.

그렇다. 나는 그 수학자의 안해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는 그의 소박하고 미더운 모습이 생생히 안겨온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따라배워 열렬한 애국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고 나가는 이 나라 녀성들의 군상과 함께…

본사기자 려 명 희

새 기 술 소 식

관심을 모으는 고혈압왁찐

최근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치료목적으로 개발한 고혈압왁찐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고혈압환자들의 60~70%가 일명 《원인불명의 고혈압증》이라고 하는 본태성고혈압환자들이며 이것의 주요발병원인이 혈압상승물질인 안기오텐신에 있다고 한다. 이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높아지게 한다.

지금 고혈압치료에서는 몸안에서 안기오텐신합성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캅토프릴, 에날라프릴 등과 생성된 안기오텐신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들이 효과적인 약들로 인정되고있다. 그러나 약물치료과정에 부작용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환자들이 제때에 약을 먹지 못하거나 약먹는것을 잊어버리기때문에 응당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부터 고혈압왁찐이 개발되였다고 한다. 고혈압왁찐은 불활성화시킨 병원성비루스에 안기오텐신을 결합시켜 만들었다. 이 왁찐을 인체에 주사하면 면역계통에 의하여 안기오텐신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며 이 항체가 안기오텐신에 저항할뿐아니라 체내의 순환기계통에서 안기오텐신을 제거함으로써 혈압이 낮아지게 된다.

이 고혈압왁찐은 작용원리가 보통왁찐과 같지만 예방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왁찐으로서 지금 림상시험단계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 왁찐의 특성은 우선 약물치료에 비하여 약효지속기간이 긴것 (4달정도)이며 심장발작과 뇌출혈이 많은 아침시간의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기때문에 그 발생률을 줄일수 있다는것이다. 수축기혈압이 5㎜Hg만 낮아져도 심장발작과 뇌출혈의 발생률을 3분의 1로 줄일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부작용이 적거나 가볍게 나타난다는것이다.

본사기자

개폐자기저항전동기

최근 전력전자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여러 나라들에서 륜전기계를 비롯한 기계설비의 구동용으로 개폐자기저항전동기라는 새로운 전동기를 받아들이고있다.

절환식자기저항전동기라고도 부르는 개폐자기저항전동기는 회전자를 돌려주는 회전모멘트의 발생원리가 흔히 리용되는 직류전동기나 교류전동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직류 및 교류전동기에서는 회전자를 돌려주는 회전모멘트가 자기마당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회전자권선이 받는 힘에 의하여 생긴다. 개폐자기저항전동기에서는 고정자권선들에 회전자를 회전시키려는 방향으로 직류전압을 짧은 시간씩 차례로 걸어줄 때 고정자와 회전자로 이루어지는 자기회로의 저항이 최소가 되게 회전모멘트가 발생한다.

개폐자기저항전동기는 자기저항회전모멘트를 리용하는것으로 하여 직류전동기나 교류전동기에 비하여 좋은 점이 많다.

구조가 간단하여 제작이 쉽고 고속회전에 유리하다. 최고회전속도는 분당 10만회에 달한다고 한다. 기동과 역회전, 속도조절을 비롯한 운전특성이 좋고 운전믿음성이 높을뿐아니라 전력소비가 작다.

이밖에도 개폐자기저항전동기는 단위체적당 출력이 높으며 정류된 직류전원을 쓰는것으로 하여 전압, 주파수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계통전압이나 주파수가 변화되여도 운전특성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고 단락현상이 없는 등 여러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있다.

현재 여러 나라들에서는 개폐자기저항전동기를 기동특성이 좋고 믿음성이 높으므로 운수설비의 전동기로 리용하고있다. 효률이 높고 전력소비가 적으므로 각종 전동장치들과 가정용전기제품들에 리용하고있다. 고속원심분리기, 고속특수방직기 등의 고속운전에도 리용하고있다.

본사기자

날바다수역에서 바닥식다시마양식방법

함경북도수산관리국에서 여러가지 대용자재를 리용하여 원가를 대폭 줄이면서 시설물의 안전성이 높은 바닥식으로 다시마를 양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발명의 우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미 조성한 뗴식양식면적을 대용바줄을 리용하여 그 생산면적을 두배이상으로 늘일수 있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종전보다 훨씬 높이고 정보당 자재소비원가를 낮출수 있게 한다. 또한 바닥식으로 다시마양식을 진행하여 자연서식환경과 비슷한 조건을 지어줌으로써 생산된 다시마의 질을 높이게 한다. 그리고 바다가연안수역에 인공적인 해조류자원을 조성하여 바다생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성게나 해삼을 비롯한 연안정착성수산자원증식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본사기자

참된 사랑과 지극한 정성으로

은파군 류정리진료소 조산원 **민광희동무**는 20년을 하루와 같이 새 생명의 출생을 위해 바쳐오는 참된 보건일군의 한사람이다.

20대의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그의 어깨에서는 어느 하루도 치료가방이 내리워진적이 없다.

친어머니처럼 뜨겁고 다심한 의료상방조속에 참으로 많은 녀성들이 새 생명을 받아안았다.

중태에 빠졌던 산모들과 어린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해 때로는 비내리는 밤길을 걷고 때로는 눈내리는 새벽길을 헤치며 그가 바친 헌신과 사랑은 참으로 지극한것이였다.

그는 오늘도 임신부들에 대한 상담조직과 조기등록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진행하는것과 함께 그들을 위한 치료용구급함을 만들어놓고 급한 환자가 생기면 제때에 치료할수 있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위생선전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영 식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 위원장회의에 참가할 남측, 해외측대표단들 도착

【평양 3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 위원장회의에 참가할 김상근상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대표단, 곽동의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대표단이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안경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단들을 맞이하였다.

아름답고 고상한 조선옷을 더 잘 만들기 위하여 지혜를 합쳐간다. —보통문조선옷점에서— 전 성 남 찍음

통일애국력량의 승리는 력사의 필연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공동사설의 전투적구호는 지금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통일애국의지를 활화산처럼 분출시키고있다. 지금 우리 겨레는 6.15통일시대가 열어준 길을 따라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전진해온 지난 10년간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올해의 통일대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은 의연히 악랄하지만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결코 꺾을수 없으며 통일애국력량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력사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발전한다.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조국통일이다. 외세에 의해 60여년간이나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과제이다. 하기에 우리 민족은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피어린 투쟁을 벌려왔다. 그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강력한 주체적통일력량이 마련되고 조국통일운동은 강화되여왔다.

우리 민족의 통일애국력량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이 자주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뭉친 불패의 애국대오이다.

어떤 사회적운동이든지 그 승리는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 역시 주체의 주동적인 역할과 작용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수 없다.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력사도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조국통일은 어렵고도 복잡한 민족사적과제이며 따라서 몇몇 정치인이나 개별적단체, 인사들의 힘만으로는 이룩할수 없다. 애국열의에 불타는 온 민족의 적극적인 참가와 투쟁에 의해 성취되는것이 바로 조국통일이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뛰여넘어 조국통일이라는 중대한 민족사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거족적인 애국력량으로 결속되여 투쟁하여왔다.

애국의 지향을 안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굳게 단결된 대오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 반면에 단결되지 못한 대오는 설사 많은 사람들이 망라되여있다 하더라도 쉽게 사분오렬되며 결국 력사발전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지난 60여년간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으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였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애국력량은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최근년간 남조선당국이 6.15통일시대에 역행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지만 북과 남, 해외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은 련대련합과 공동행동을 강화하면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하여왔다. 이것은 그 어떤 힘도 하나의 애국지향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통일애국력량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통일애국력량이 분렬주의세력을 압도하고 승리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조국통일운동은 그것을 가로막는 분렬주의세력과의 치렬한 대립과 투쟁을 동반한다. 조국통일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통일애국력량과 분렬주의세력간의 투쟁과정이다. 력사적으로 보아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과정은 나라의 통일을 일일천추로 념원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통일애국력량과 대결과 분렬을 추구하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간의 치렬한 투쟁으로 일관되였다. 그 과정은 애국이 매국을 이기고 통일애국력량이 분렬주의세력을 압도해온 력사였다.

우리 겨레는 앞으로도 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지금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집요하게 도전해나서면서 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그로하여 북남관계는 악화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국통일위업은 엄중한 난관에 부딪치고있다. 만일 반통일분자들의 책동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이 이룩한 6.15통일시대의 성과들이 말살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소중한 꿈도 이룩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통일애국력량은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단결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세찬 격류를 일으켜나감으로써 분렬주의세력을 압도하고 그들의 반통일대결책동을 단호히 끝장내야 한다.

분렬주의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요인은 바로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통일운동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적단합의 리념이다. 조국통일의 근본리념으로서의 《우리 민족끼리》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이미 통일운동실천에서 확증되였다. 현시기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물리치고 자주통일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통일운동에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철저히 구현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온 민족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우리 겨레가 그처럼 념원하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통일애국력량은 분렬주의세력이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으로 민족을 등지고 외세와 공조하면서 통일을 반대해나서는 매국노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겨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우리 겨레가 뚫고나가야 할 시련과 난관은 아직도 크며 갈길은 험난하다. 하지만 위력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높이 추켜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통일애국력량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올해공동사설의 호소따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신심드높이 투쟁해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허 영 민

《복받은 이북의 녀성들이 부럽다》

남조선녀성들이 위대한 선군태양의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북반부녀성들의 행복한 모습에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로동자 김영실은 동료녀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북녀성들은 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사회와 가정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나라의 한쪽수레바퀴를 당당히 밀고나가고있다. 그리고 무료교육,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자식키울 걱정, 치료받을 걱정을 모르며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있다. 정말 이북녀성들이 부럽기만 하다.

한 녀성단체 회원은 《지난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사회의 최하층에서 헤매이던 이북의 녀성들이 오늘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영웅으로 되여 국가정사에 참가하고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고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서울의 리인숙녀성은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녀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특별한 사랑과 혜택을 베풀고계신다. 참으로 이북의 녀성들은 복받은 녀성들이다.》고 말하였으며 인천의 황정순녀성은 《이북에서는 가는 곳마다에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어린이보육시설과 교육시설들이 정연하게 꾸려져있어 녀성들이 근심걱정을 모르고 마음껏 일하고있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무대에 선 가정부인들의 밝은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미래음악회 회원 김유정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무대에서 환하게 웃으며 열정에 넘쳐 고마운 어버이의 품을 노래하고 행복한 생활과 미래를 노래하는 주부들의 모습은 강요해서는 그렇게 밝을수가 없는 얼굴들이고 눈빛들이다.

참으로 녀성들에게 힘을 주고 미래를 안겨주신분은 **김정일**장군님이시다.

평양을 방문하였던 한 녀성인사는 공화국북반부녀성들의 모습에서 받은 감동을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참된 세상에서 조국의 미래와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가는 길 험난해도 웃음으로 만난을 이겨내고 찬란한 미래를 향해가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찌 천만송이 꽃에 비기지 않으랴. 태양과 같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베푸시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딸들이 《세계마라손녀왕》, 《세계녀자유술의 새별》로 이름떨치고 교수, 박사, 인민과학자로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것이 아니겠는가.

녀성들의 삶을 봄날의 화원처럼 활짝 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절감한 남녘녀성들의 마음과 마음은 어버이장군님의 품으로 물결쳐흐르고있다.

녀성단체련합의 한 성원은 《북을 녀성들의 권리와 리익이 철저히 보장되는 참사회로 빛내이시는 **김정일**령도자님의 품속에 안겨살 그날을 위해 자주통일운동에 더욱 헌신하겠다.》고 피력하였으며 부산의 한 녀성은 동료녀성들에게 《이남녀성들도 하루빨리 장군님의 품속에서 이북녀성들과 같이 존엄높은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것이 평생 소원이다. 우리모두 통일된 새 세상, 녀성존중의 새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자주통일운동에 과감히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당국의 녀성차별정책을 단죄

남조선의 《전국녀성농민회총련합》, 《전국녀성련대》, 민주로총, 《한국진보련대》, 다함께,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정당들로 구성된 《3.8세계녀성의 날 공동기획단》이 2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여 당국의 녀성차별정책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에서 녀성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계속되고있다고 하면서 경제위기가 닥치면 녀성들이 제일먼저 해고되고 같은 일을 하고도 낮은 임금을 강요당하고있는데 대해 개탄하였다.

성명은 녀성들이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박차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를 전적으로 지지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미제와 남조선피뢰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규탄하여 2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3월 8일부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기로 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1만 8 000여명의 방대한 병력이 동원되는 이 군사연습은 명백히 북침을 노린것이다.

군사연습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서해상에서 도발행위를 감행하고있으며 《북방한계선》을 떠들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지금까지 제창해온 《대화》가 거짓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짓밟고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무력으로 압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는 2월 25일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걷어치울것과 미군이 남조선에서 당장 철수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선과의 친선협회의 모든 지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련대성운동을 더욱 강화할것을 호소한다.

반민족, 반통일행위를 규탄

남조선의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석방대책위원회 위원장 윤기하가 2월 22일 호소문을 발표하여 당국의 반민족, 반통일책동에 맞서싸울것을 주장하였다.

호소문은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이 《보안법》에 의해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6.15통일시대에 역행하는 현 《정부》가 강요한 비극이라고 밝혔다.

범청학련은 남과 북, 해외 청년학생들의 합법적이며 대중적인 3자련대조직으로서 미국의 간섭과 전쟁책동을 막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활동하는 애국청년단체라고 호소문은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존재명분을 잃은 악법을 휘둘러 통일애국청년을 탄압하는것은 파쑈적횡포라고 호소문은 단죄하였다.

호소문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인간의 초보적권리인 사상과 량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주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는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다고 하면서 통일운동세력모두가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악법철폐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정보원》, 《보안수사대》와 같은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을 방해하는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은 하루빨리 제거되여야 한다고 호소문은 지적하였다.

호소문은 사회의 각계각층이 《정부》와 사법당국의 폭거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헌신짝처럼 줴버린 《공약》들

지난 2년전 남조선에서 《실용정부》의 등장을 전후하여 보수패당이 들고나온 《공약》들은 요란하였다. 《경제성장》, 《선진화사회건설》, 《서민을 위한 정치》…

그것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하지만 그것들중 실현된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오늘에 와서 현 보수당국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환멸과 분노로 바뀌고말았다. 보수패당이 집권하면서 들고나온 《공약》들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새빨간 거짓말로서 그것은 한마디로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 집권초기 권력안정의 토대를 닦기 위한 기만광고였다. 최근 남조선출판물들에 《〈실용정부〉의 2년은 우리 민중이 불통과 거짓, 고통이란 무엇인가를 똑똑히 체험한 나날이였다.》, 《화려한 〈공약〉들을 쏟아놓으며 〈실용정부〉라는 문패를 달아놓았지만 그것이 빚어낸것은 민중의 원한과 저주뿐이다.》, 《〈선거〉공약으로 부르짖었던 성공시대는 불과 2년만에 서민암흑시대로 바뀌였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련이어 실린것도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사실상 남조선보수당국은 집권 첫해부터 시종 거짓말로 인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면서 사회전반을 파국에로 몰아넣는 반역통치만을 일삼았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남조선집권세력은 2007년 《대통령선거》당시 년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들고나왔다. 그런데 보수당국의 일자리 《공약》은 빈말로 끝나고말았다. 얼마전 당국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에서 실업자수는 400만명으로서 2000년 2월이후 사상 최악을 기록하였다. 그중 청년실업자수만도 74만 8 0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있는 이런 심각한 실업사태와 관련하여 남조선항간에서는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건달), 《십오야》(15살만 되면 앞이 캄캄하다.), 《십장생》(10대도 장차 백수건달이 되는것을 생각해야 한다.), 《삼일절》(31살이면 취업길이 막혀 절망한다.), 《사필귀정》(40대에는 반드시 퇴직당한다.)과 같은 말들까지 류행되고있다. 대학생들이 졸업증대신 《실업증서》를 들고 대학문을 나서며 암담한 사회현실을 개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일자리를 얻을수 없는 불행한 처지를 두고 《실업인생》이라고 울분을 터뜨리며 자살, 리혼, 사기협잡의 길을 서슴없이 택하고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반값등록금》(교육비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공부시키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수패당은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뒤집는가 하면 《반값등록금정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의 고충을 리해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수작을 늘어놓으면서 《대학자률화》, 《국립대학의 민영화》 등과 같은 부당한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아 등록금인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어내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학생들의 1년분 등록금은 로동자가 등뼈가 휘도록 고된 로동에 시달리며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번 1년분 로임을 고스란히 들이밀어도 모자라는 엄청난 액수라고 한다. 그리하여 수많은 대학생들속에서 등록금을 내지 못하여 퇴학당하거나 휴학하는 률이 높아가고있으며 자식들의 등록금때문에 자살하는 부모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세종시건설문제는 《선거공약》을 눈섭 하나 까딱않고 차버리는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처사를 날날이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세종시를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던 집권자의 약속은 결국 〈대선용〉이였다.》고 격분을 터뜨리고있다.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현 집권세력은 무려 20차례 가까이 《세종시원안추진》을 《공약》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이자들은 지금 《지난 선거때 어정쩡하게 얘기했댔다.》느니, 《지금에라도 잘못된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것이 다 좋은것은 아니다.》느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수작들을 늘어놓으며 《세종시원안》을 백지화해버리였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정치적위기가 극도로 심화되고 사회전체가 갈등과 혼란속에 빠져들고있다.

이뿐인가.

현 당국은 민심의 지탄과 배격을 받고 이미전에 오물통에 처박힌 《대운하계획》을 임기내에 절대로 실행하지 않을것이라고 약속하였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4대강정비사업》으로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사실상의 《대운하계획》을 공공연히 추진하고있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오죽했으면 지금 남조선항간에서 《〈대통령〉을 믿는 사람과 〈정부정책〉을 곧이듣는 사람, 검찰수사결과를 신뢰하는 사람이 〈3대바보〉이다.》라는 말이 나돌고 인민들이 《실용정부》의 《공약》리행정형을 총점 락제로 매기며 《당국자의 말을 사람들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듣지 않을것》이라고 도리질을 하고있겠는가.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며 사기와 기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인민들을 기만우롱하며 민심을 거역하는 통치배들은 실패를 면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다가오는 《지방자치단체선거》가 그것을 립증해줄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헌신으로 빛나는 참된 당원의 삶

황해남도량곡중계사업소 지배인 박승필동무

두해전 12월말이였다. 평양의 어느 한 병원문을 나서는 박승필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의사들의 눈빛에서 자기의 병이 현대의학으로써는 어쩔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는것을 느끼였던것이다.

해주로 달리는 자동차안에 말없이 앉아있는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였다. 생에 대한 애착의 눈물이 아니였다.

박승필동무는 제대군인당원이다. 그의 심장은 오로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고동쳐왔다. 그런데 49살의 나이에 쓰러지게 된다니 그것이 괴로왔던것이다.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갈길이 멀지 않은가. 투쟁의 길에서 순간도 물러설수 없는 그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의 시작이 아름다왔으면 생의 마감도 아름다와야 합니다.》

사업소에 도착한 그는 구내길을 걸었다. 아담한 휴계실건물, 그쯘하게 꾸려진 수리기지, 줄지어 늘어선 자동차들…

병으로 하여 호흡하기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였지만 얼굴에는 더없는 보람이 비껴있었다.

10년전 그가 지배인으로 임명되여왔을 때 사업소의 자동차형편은 시원치 못하였다. 차수리기지도 변변하지 못하였다. 더욱 안타까운것은 자신이 자동차물계를 잘 모르는것이였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병사시절에 군인정신을 체질화한 그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일어섰다. 짧은 기간에 운전기술을 익히고 자동차의 구조며 동작원리 등을 터득하기 위해 밤을 밝히였다.

한편 자동차수리기지를 꾸리고 자동차대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보링반, 연유뽐프시험대, 선반을 비롯한 여러가지 설비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걸은 길이 얼마인지 모른다. 못쓰게 된 자동차부속품이 어디에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달음으로 달려가 가져오군 하였다. 그의 아글타글한 노력에 의해 첫해에 다섯대의 낡은 자동차가 수리되여 수송길을 달리게 되였다. 그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은 낡은 자동차를 새것처럼 수리해놓았을 때였다. 그럴 때면 사업소의 재산이, 나라의 재부가 또 하나 늘어났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은 설레이군 하였다.

자체의 힘으로 자동차대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은 계속되였다. 그리하여 오늘은 자동차가 수십대로 늘어나게 되였으며 사업소는 해마다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였다.

종업원들과 함께 잡초와 파철더미를 들어내고 문화선전실, 휴계실을 비롯한 여러 건물을 일떠세우던 나날들도 잊을수 없었다.

꿈같이 흘러간 10년이였다. 해놓은 일도 많고 보람도 컸지만 해야 할 일 또한 많았다.

(사람은 인생의 첫걸음을 잘 떼야 하지만 한생의 마무리도 잘해야 하지 않는가. 얼마 남지 않은 생이지만 달음질쳐 살자.)

그의 결심은 굳어졌다.

지난해초 황해남도에서는 어느 한 협동농장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었다.

그는 도의 책임일군을 만나 자기를 건설장에 보내달라고 제기하였다. 그러자 책임일군은 안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불치의 병을 앓고있는데 어떻게 건설장에 보낼수 있는가고 하면서 도리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박승필동무는 물러서지 않았다.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것이 진정으로 저를 위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어찌할수 없는 병을 진단받고서도 절망과 비관이 아니라 먼저 당원의 본분을 되새기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충직하게 받들 맹세로 가슴을 불태우는 그의 높은 정신세계에 책임일군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박승필동무는 종업원들과 함께 건설장에 달려나가 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꼈다. 불편한 몸이지만 자재해결을 위해 자동차로 수백리를 달리기도 하였고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블로크를 져나르기도 하였다. 사업소가 살림집건설을 맡은 수십개 단위들가운데서 제일먼저 공사과제를 끝내는 혁신을 이룩하게 된것은 그의 불같은 열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길지 않은 여생에 어머니당을 위해, 종업원들을 위해 한가지 일이라도 더 하려고 박승필동무는 시간을 분, 초로 헤아리며 달음질쳤다.

그는 매일 륜전기재들의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 한편 자체의 힘으로 모내기철전에 여러 정보의 부업지를 개간할 결심을 품고 달라붙었다.

청단군의 바람세찬 간석지에 첫삽을 박는 날부터 모내기가 시작되는 날까지 그는 하루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뼈를 에이는듯 한 아픔이 그의 육체를 괴롭혔지만 강의한 의지로 이겨내며 감탕을 져날랐다. 헌신의 땀방울이 자양분이 되였는가 간석지벌에서 파란 잎새를 흔들며 우줄우줄 키를 솟구는 벼포기들을 바라볼 때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150일전투가 시작된 날에 있은 일이다. 남편의 병을 걱정하며 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안해에게 박승필동무는 말하였다.

《래일부터 집에 인차 들어오지 못할것 갈구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는 안해에게 사실을 다 말할수 없었다. 그는 병이 악화되여 걷기조차 힘들다는것을 느꼈던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진두에서 이끄시는 15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면 지휘관인 자기가 기발을 들고 나서야 하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무슨 당원이고 일군이란 말인가.

《나에게 지금 제일 귀중한것이 시간이라는것을 당신도 잘 알지 않소. 출퇴근시간도 아깝구만.》

송명숙녀성의 눈시울은 젖어들었다. 한생을 거의나 집을 잊다싶이 하면서 불같이 일해온 남편이였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나마 치료를 받으며 지낸다고 누가 탓하랴. 하지만 남편은 자기의 병을 까마득히 잊고 한가지 일이라도 더 하려고 아글타글하는것이였다.

그는 아빠트건설목표를 내세우고 밤낮으로 애썼다.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것이 가슴에 걸렸던것이다.

그는 긴장한 수송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살림집건설을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얼마 안되는 종업원들의 힘으로 아빠트를 일떠세운다는것이 헐치 않았지만 이악하게 공사를 내밀었다. 도의 책임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치료를 받으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그의 결심을 돌려세울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걸음에 발을 맞추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달리고달리리라!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표앞에서도 비관과 락심이 아니라 오히려 웃으며 분발하여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살림집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른 지금 그는 또다시 새로운 작전을 펼치였다. 사업소마당에 있는 건물을 옮겨 새로 짓고 대형화물자동차들도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게 구내를 더 넓힐 목표를 내세운 그는 지금 그 준비사업을 착실히 해나가고있다.

불굴의 정신력으로 생의 한초한초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박승필동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장군님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춘 참된 당원, 동지들과 집단이 영원히 기억할 참된 인간인것이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에서—

의약품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고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최충성 찍음

교원들의 자질을 더욱 높여

천리마구역 제강중학교에서

천리마구역 제강중학교는 구역적으로 실력이 높은 학교들중의 하나이다.

학교는 교수방법토론회와 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를 비롯하여 시는 물론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되는 경연과 전시회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교원들의 높은 자질은 학생들의 학과실력으로 이어져 이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수재양성기지들과 대학들에 입학하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학교에서 교원들의 자질향상사업을 근기있게 내민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의 자질은 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교무행정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드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부교장 김성희동무는 교무행정사업을 짜고들고 교원들이 교수준비를 비롯한 교수의 전과정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교원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전공과목은 물론 린접과목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한편 교육실천에 의의있는 새 교수방법들을 부단히 탐구하여 45분수업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하고있다.

분과별교수경연과 교수방법토론회, 보여주기수업 등 활발히 진행되는 자질향상사업들은 올해공동사설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교원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학교에는 리영심, 김백송, 원철민동무를 비롯하여 자기 맡은 과목교수에서 실적이 높은 우수한 교원들이 많다.

학교에서는 여러 계기를 통해 이들을 내세워주고 경험을 일반화하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교원들이 깊은 지식과 높은 기량을 소유한 혁명인재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자면 자질이 높아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실력제고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하게 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과실력은 교원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과경연을 계획적으로 자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놓고 교원들의 자질을 평가하고있다.

활발히 진행되는 자질향상사업들을 통하여 교원들은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교수경험을 소유한 실력있는 교육자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조 영 훈

인류자주위업에 쌓으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신문이 특집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라오스, 메히꼬, 파키스탄에서 친선모임,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예술공연이 2월 10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로씨야 하바롭스크원동국립교통종합대학, 라오스조선석회사, 메히꼬조선친선협회, 파키스탄 카라치 알리 알리학교,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의 인사들과 군중이 행사들에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로씨야 하바롭스크원동국립교통종합대학 1부총장은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이름으로 탄생일을 맞으시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하고 이번 련환공연은 로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기여할 또 하나의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메히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과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신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조선인민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파키스탄 카라치 알리 알리학교 총교장은 조선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나라를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다고 격찬하였다.

그는 《김정일학급》을 가지고있는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이바지하며 학생들이 절세위인의 업적을 따라배우고 파키스탄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인 《강성대국의 불보라》, 《조선의 대답》이 상영되였다.

예술공연무대들에는 합창 불멸의 혁명송가들인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　⁂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고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뻬루신문 《후안 뿌에블로》 2월 20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세계평화를 담보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이라는 표제밑에 옹근 한면 특집하였다.

신문은 《조선인민의 력사》, 《사회주의건설과정》이라는 제목의 글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미일제국주의를 타승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한데 대하여, 짧은 기간에 조국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신문은 《오늘의 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발사국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되고 CNC기술이 세계의 첨단을 확고히 돌파하는 등 경이적인 사변과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전하였다.

조선이 정치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라선것은 조선인민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밑에 단결하여 투쟁한 결과이라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의 애국적열의는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고 하면서 신문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조선해방 65돐을 맞는 2010년에 조선이 이룩하게 될 새로운 성과들은 정의와 평화,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뻬루에서 2월의 명절경축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도 함께 편집하였다.

캄보쟈인민당기관지 《인민》도 같은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기념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김정일령도자는 인민적령도자의 전형이시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과정에 그이의 인민적풍모를 보여주는 사랑의 전설들이 수많이 창조되고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였다.

벌가리아신문 《이스크라》 2월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옹근 한면 특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민족이 자주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의 통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있는것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통일위업실현의 자주적대를 튼튼히 세워주시였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핀란드신문 《깐싼 애애니》 2월 3일부는 《자주위업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인구도 많지 않고 령토도 크지 않은 조선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에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며 국제사회의 초점을 모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경탄을 자아내고있는 조선의 위력의 원천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있는데 있다.

조선의 위력은 곧 김정일동지의 위력이다.

그이의 사상과 령도, 풍모의 위대성에 조선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김정일동지께서 일찌기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자주성을 핵으로 하는 주체사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자주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지도리념으로 널리 공인되게 되였다.

자주위업의 앞길을 밝히신 그이의 사상리론적업적에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것은 선군사상, 선군정치이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고 그를 구현한 선군정치를 펼치심으로써 현 국제정세하에서 군사를 앞세우고 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으로 내세우는데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의 길이 있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오늘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반제투쟁의 필승의 무기, 자주위업실현의 만능의 보검으로서 국제사회의 각별한 주목을 끌고있다.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자주위업의 불패의 보루로 튼튼히 다져진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에짚트신문 《알 마싸이야》 2월 3일부는 인류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본사기자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필승의 보검

오늘 우리 공화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일심단결의 나라로 불리우고있다.

국제사회계는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조선이야말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가는 강국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기네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한 강연에서 일심단결은 김정일령도자의 혁명철학이라고 하면서 일심단결의 혁명철학은 사회정치적생명체에 관한 독창적인 원리를 발견하시고 사회정치적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단결의 사상을 천명하신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조선인민은 김정일총비서의 령도따라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총비서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다. 그이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셔버리며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김정일총비서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군대와 인민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깊이 느끼군 한다. 일심단결의 힘과 선군의 위력이 있기에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조선을 감히 어쩌지 못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켜갈것이다.》

언제인가 로씨야신문 《울라지보스또크》는 우리 나라의 일심단결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은 일심단결의 나라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치시여 온 나라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드시였다. 이 일심단결은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더욱 공고화되였다. 오늘 국제사회계가 제일 놀라와하는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조선의 일심단결이다. 조선인민이 그토록 엄혹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어떻게 승리자로 될수 있었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는가에 대한 력사의 물음과 수수께끼는 바로 일심단결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령도자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가장 공고한 단결이며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필승의 보검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운명을 함께 해나가는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으로 되고있다.

메히꼬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는 불레찐에서 조선에서는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수뇌부를 핵으로, 수령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일심단결을 튼튼히 다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집권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본분이라는것을 밝히시고 당이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는것과 함께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어머니당으로 되게 하는데 각별한 주목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 지니신 이민위천의 좌우명은 조선로동당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되고있다. 하여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게 되였다. 조선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당과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친 일심단결의 나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은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철학, 일심단결의 철학을 사회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오시였다고 하면서 일심단결하면 언제나 이긴다는것은 력사의 진리이다, 오늘 조선은 일심단결의 힘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물리치고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사람중심의 정치, 일심단결의 정치로 조선인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라고 하였다.

세계사회계가 한결같이 찬양하는것처럼 일심단결은 력사의 온갖 도전들을 물리치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게 하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필승불패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상징이다.

라 명 성

조선에서의 나무심기운동

로씨야통신이 소개

3일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이 우리 나라에서 식수절에 즈음하여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봄철나무심기에 한결같이 떨쳐나선데 대해 소개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자기 산천, 자기 향토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자!》,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록음이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 공원속의 마을로 만들자!》라는 구호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국적인 나무심기운동이 시작되였다.

1946년 3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란봉에 오르시여 나라의 산과 들을 아름답게 가꿀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의 뜻을 받들고 조선인민은 해마다 이날을 맞으며 나무심기에 떨쳐나서고있다.

3월 2일 평양에서 진행된 나무심기운동에 당과 국가간부들과 로동자,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산림보호는 전인민적인 운동이다.

조선에서는 식수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그 누구도 살아있는 나무를 자르거나 찍지 못하게 되여있다.

수도를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시민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나무들, 감나무를 비롯한 여러종의 과일나무들을 심고있다.

따뜻한 봄빛에 대지가 녹기만 하면 평양의 거리들은 아름다운 꽃바다에 잠기고 독특한 향기를 풍기게 될것이다.

공화국의 기타 도들에서도 나무심기사업이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조선에서 나무심기는 중요한 경제적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선에서는 생태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본사기자

나라의 평화를 수호할 립장 천명

수단대통령 오마르 하싼 아흐마드 알 바쉬르가 1일 남부지역의 쥬바시에서 한 연설에서 나라의 평화를 수호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정부가 2005년에 체결된 내전의 완전종식에 관한 최종평화협정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정부는 남부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나라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체 주민들이 단결할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나라의 공업발전조치에 대해 언급

에짚트대통령 무함마드 후쓰니 무바라크가 1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공업발전조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 16개의 새로운 공업지구를 창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목적은 실업률을 줄이고 수출을 장려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2013년까지 경제장성률을 10%로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비난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3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지배주의적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무성이 그 무슨 보고서에서 볼리비아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 벌리고있는 반마약투쟁을 믿을수 없다느니, 무력을 파견하여 《협력》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제창해나선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렇게 한 목적이 지역나라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데 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의 이와 같은 처사는 다른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지진피해복구사업에 떨쳐나설것을 호소

칠레대통령 미첼레 바첼레뜨가 3일 한 회의에서 전체 인민이 지진피해복구사업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우리는 재난앞에서 물러설수 없으며 다시 일어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언명하고 복구사업은 모든 주민들자신의 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지금 피해지역들에서 가능한 빨리 초보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고 그는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협　조

우루과이와 베네수엘라가 2일 쌍무무역을 촉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우루과이와 에꽈도르는 연료무역에서의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은 에꽈도르대통령의 우루과이방문과정에 조인되였다.

또한 수리아와 아제르바이잔이 2일 에네르기분야에서 호상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고등교육발전조치

인디아에서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나라에서는 올해 4월에 시작되는 2010-2011회계년도예산안에서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현 회계년도에 비해 7% 더 늘이기로 하였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차생산 증대

케니아에서 올해 1월에 3만 7 700t의 차를 생산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7%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한편 차수출량은 12% 증대되였다.

산림보호조치

서아프리카나라들인 시에라레온, 모리따니, 세네갈, 기네-비싸우, 감비아, 기네가 최근 시에라레온의 프리타운에서 산림보호 특히 망그로브림보호와 관련한 행동계획에 조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 나라들은 공동으로 망그로브림을 보호하기 위한 전망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리행해나가는것과 함께 산림자원을 증식시키는 사업도 진행하게 된다 한다.

취업률 증가

뻬루의 도시들에서 지난해 취업률이 1.3% 늘어났다. 정부에서 올해에 더 많은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한다. 2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짐바브웨에서 광석채굴

자본주의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는 인민대중의 무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는 한마디로 말하여 썩고 병든 사회이며 전도가 없고 멸망에 가까와가는 사회입니다.》

국제부녀절이 생겨 100년이 된다. 자본주의세계를 뒤흔들어놓았던 1909년에 있은 미국 시카고녀성로동자들의 투쟁을 발단으로 탄생한 3.8국제부녀절,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 사회적불평등과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나가려는 전세계녀성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여기에 응축되여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세계의 년륜마다에는 온갖 모순과 사회악의 희생물이 되여 커다란 불행과 고통에 시달리고 생존의 권리와 자유, 존엄을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녀성들의 비극적운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배 금 희

피할수 없는 비극적운명

《녀성의 빈궁화》는 현재 국제적으로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약 15억명의 녀성들이 빈궁에 시달리고있다. 《만민복지》와 《문명》을 자랑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녀성빈궁자수는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일본에서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근로자들가운데서 70%이상이 녀성들이다. 미국에서는 2006년말에 빈곤층생활을 하는 녀성들이 녀성총수의 22.2%에 달하였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녀성의 빈궁화》는 사회에 지배하는 불평등, 녀성차별에 기인된다.

반인민성과 반동성으로 하여 실업이 불치의 병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은 녀성들을 괴롭히는 첫째가는 《원쑤》이다.

녀성들이 직업을 얻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더우기 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위기로 오랜 력사와 자금력을 자랑하던 은행들과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되고 《경영손실》을 메꾼다는 미명하에 기업들이 저저마다 대대적인 해고소동을 벌리고있는 형편에서 더욱 그렇다. 요행 직업을 얻은 녀성들의 경우에도 로동생활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있다.

미국에서 녀성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76.2%에 불과하다. 이딸리아에서는 녀성근로자들이 남성근로자들에 비해 평균 16%나 적은 임금을 받고있다. 최근년간 도이췰란드에서는 남녀사이의 임금격차가 23%로 증대되였다.

물질적, 정신문화적재부를 창조하는 로동생활에 자기의 힘과 지혜를 바쳐가는 녀성들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노력에는 응당한 대가가 따라서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의 처지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부르죠아정객들이 《만민평등》, 《인권존중》을 부르짖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에 대한 혹심한 차별과 멸시는 일상다반사로 되고있다.

2007년 1월 일본의 후생로동상이란자가 녀성을 《아이낳는 기계》라고 모독하고 지난해 이딸리아수상이 부인을 상품처럼 대통령에게 《선물》하였다고 한것을 비롯하여 자본주의나라의 고위정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도 거북하게 몰상식하고 도덕적으로 저렬한 망발을 하는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녀성들이 인신매매의 주요대상으로 되고있다. 세계적으로 인신매매로 하여 근 250만명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강제로동에 종사하고있는데 그 대부분이 녀성과 어린 소녀들이다.

최근 2년동안에만도 미국에서는 10만여명의 녀성들이 매매되고 약 5만명의 녀성들이 성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다.

녀성매매의 《주요목적지》로 되고있는 일본에서는 인신매매범죄조직이 떠들어대는 무용수선발, 료리사채용, 미용사모집 등 그럴듯 한 직업광고들에 속아 섬나라에 끌려온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출신의 수많은 녀성들이 《성산업》에 종사하고있다.

그들은 일본의 《성산업》경영주들에게 팔린 순간부터 모든 자유와 권리를 잃고 갖은 학대와 멸시속에 성노예로 전락되고있다.

변태적인 성욕자들의 시달림을 받는것도 헐치 않은데다가 《주인》들의 학대 또한 가혹하기 그지없다. 만일 반항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야만 하는것이 그들의 기막힌 운명이다. 이것은 일본뿐아니라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잃은 수많은 녀성들이 상품화되여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미련방수사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대체로 녀성들이 매춘행위를 시작하는 평균나이는 13살이며 지어 9살에 매춘업에 발을 들여놓는 소녀들도 있다고 한다. 아직 세상물정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진한 소녀시절부터 돈에 팔려 치욕스러운 성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참한 처지,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짓밟히는 모성의 권리

지난해 9월말 일본의 한 식당 쓰레기통에서 태여난지 불과 10분도 되나마나 한 갓난아이가 발견되였다.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낸 사건의 《범인》은 다름아닌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는 자기의 처사에 대하여 《돈이 없어 키울 자신이 없기때문에 할수없이 위생실에서 아이를 낳은 다음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주저없이 말하였다.

이 기막힌 현실은 돈에 목이 메여 모성의 권리마저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황금만능의 일본사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태여날 때부터 쓰레기와 같이 취급되는 자본주의사회의 비극적현실을 절감하게 한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훌륭히 키워 사회앞에 떳떳이 내세우고싶은것은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녀성의 이 권리를 자본주의사회는 무참히 짓밟으며 빼앗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녀성들의 해산비는 최고 1만US$에 달하며 산모의 하루입원비는 최고 1 200US$, 갓난애기의 하루입원비는 1 400US$라고 한다. 그러니 보잘것 없는 수입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겨우 유지해가는 수많은 녀성들이 어떻게 병원에서의 해산방조를 바랄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당장 해산을 앞둔 임신부가 청진기로 환자가 아니라 그의 돈주머니부터 가늠해보는 의사들에 의해 한지에서 해산하는 비극이 수시로 빚어지고있다.

일본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에 해산을 앞둔 임신부들이 병원에서 문전거절을 당한 일이 전국적으로 총 2 780여건에 달하였다. 그런가하면 아이를 낳고 일자리를 떼울것이 걱정되여 산모의 40%이상이 산후휴가를 받지 않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수많은 녀성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는것은 커다란 부담으로 되고있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아이를 버리는것을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져 한 녀성이 23명의 자식을 버리는 《기록》을 세웠겠는가.

서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할 리유 40가지》라는 책이 출판되여 녀성들의 관심을 모으고 서방세계에서 출생률이 떨어지고있는것 등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적사고관점, 사회적불평등이 지배하는 암담한 사회, 녀성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자본주의사회의 어지러운 면모의 일단을 보여준다.

온갖 폭력의 희생물

녀성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보금자리를 그린다.

보금자리가 없는 녀성의 인생은 둥지잃은 새와 같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말도 있다.

때문에 녀성이라면 누구나 가정이라는 단란한 보금자리를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는커녕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있는 자본주의나라 수많은 녀성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불행의 근원으로 되고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년동안에 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은 녀성들의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오스트랄리아와 일본에서는 각각 녀성들의 55%, 33.2%가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이딸리아에서는 녀성 3명당 1명이 폭력행위를 강요당하고있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가정에서 남자들의 폭행은 가정을 파괴하는것은 물론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몰아오고있다.

가정폭력행위가 얼마나 극심한가 하는것은 미국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이라는 괴이한 법까지 만들어지고 결혼증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부가세》를 받아 학대받는 녀성들의 피난소제공에 보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짐작할수 있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녀성으로 태여난것이 죄 아닌 《죄》로 되여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의 버림을 받고 가정에서는 박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된 많은 녀성들이 삶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잃고 비관과 절망, 타락한 생활에 빠져드는가 하면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다.

미국과 영국 등 자본주의나라 감옥들에 녀성범죄자들이 차고넘치고있는 사실이 그를 말해준다.

그가운데는 미국의 쟌네트라는 녀성처럼 감옥을 유일한 피난처로 정하고 우정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지는 녀성들이 적지 않다.

2000년부터 2003년사이에 미국의 감옥에는 3 000여명의 임신한 녀성수감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다.

자본주의라는 썩은 토양에 뿌리내린것으로 하여 인생의 막바지에서 모대기며 시들어가고 작은 몸 하나 건사할 집이 없어 감옥을 《보금자리》로 택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바로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의 불우한 처지이다.

ㄱ-01038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집위원회